

Daniel: 14: Sermon Notes

Title: “Nebuchadnezzar's second dream (part 1)”

Scripture: Daniel 4:1-9

Date preached: September 8th 2024**Scripture: Daniel 4:1-9****1 Nebuchadnezzar the king,****To all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that dwell in all the earth: Peace be multiplied to you.****2 I thought it good to declare the signs and wonders that the Most High God has worked for me.****3 How great *are* His signs,****And how mighty His wonders!****His kingdom *is* an everlasting kingdom,****And His dominion *i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4 I, Nebuchadnezzar, was at rest in my house, and flourishing in my palace. 5 I saw a dream which made me afraid, and the thoughts on my bed and the visions of my head troubled me.****6 Therefore I issued a decree to bring in all the wise *men* of Babylon before me, that they might make known to me the interpretation of the dream. 7 Then the magicians, the astrologers, the Chaldeans, and the soothsayers came in, and I told them the dream; but they did not make known to me its interpretation.****8 But at last Daniel came before me (his name *is* Belteshazzar, according to the name of my god; in him *is* the Spirit of the Holy God), and I told the dream before him, *saying*:****9 “Belteshazzar, chief of the magicians, because I know that the Spirit of the Holy God *is* in you, and no secret troubles you, explain to me the visions of my dream that I have seen, and its interpretation.**

1 느부갓네살왕은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천하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2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과 기적에 대하여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3 믿어지지 않는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여 주신 하나님, 그는 영원한 왕이 되어 대대로 다스리실 것이다.

4 나 느부갓네살왕은 궁전에서 편안히 지내다가 5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나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하는 중에 이상한 환상으로 몹시 번민하였다. 6 그래서 내가 바빌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불러 그 꿈을 해몽하라고 명령하였다. 7 점쟁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가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꿈을 말했으나 그들은 내 꿈을 해몽하지 못하였다.

8 그 후에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들어왔다. 그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9 “박사장 벨드사살아, 나는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네가 어려워서 풀지 못할 신비스러운 일은 없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내 꿈을 해몽하라.

Review

Before we look at the first nine verses of chapter 4 let's briefly review some of the things we looked at last week.

Let's be honest. Some chapters of the bible are a little heavy going, a little bit of a struggle to get through. All of us can probably bring to mind parts of the bible that we find challenging. For a whole variety of reasons the words we are reading, and the message they convey fail to properly move or inspire us. That certainly cannot be said for the third chapter of the Book of Daniel. It's an incident packed chapter. Full of colour, excitement, mystery and best of all the glorious power of God on full display.

It opens by revealing to us the pride and hubris of king Nebuchadnezzar. He erected a large golden image and called upon all of his civil servants to come and bow, or worship before it. There is near universal obedience to his decree. In the pagan polytheistic culture of Babylon no one objected to bowing before an idol. Three men however stubbornly refuse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s devout and loyal Jews could not comply. They model for us how we are to live within a hostile and anti-Christian world. They were loyal servants to the king, but not to the extent that they would follow his decree and disobey God. God and what He commands must always come first. This same principle still applies today. We should be good citizens, and obey those that God has placed in authority over us. But that obedience must end if they ask us to go against something that God has commanded.

Nebuchadnezzar was furious with their decision. He called them to him and gave them one final chance to comply with his wishes. Their answer to the king stands as one of the boldest most courageous acts of faith recorded for us in the pages of scripture. They tell the king that they worship God alone. Nothing will ever cause them to turn from Him. Not even the terrifying prospect of a fiery death can sway them. The king is incensed. He orders that the furnace be heated to the maximum degree and then commands that our three heroes be thrown in.

As the king watches from a distance he is greatly shocked to see what transpires. No doubt he expected to see these men rapidly burnt to a crisp. But this does not happen. Instead, he sees them walking around among the flames unbound. Even more shocking is how many men he sees. Three were thrown into the furnace but now there are four. The fourth person is a pre-incarnate appearan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king hurries over to the furnace and asks them to come out. When they exit all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witness the event are astounded. The men show no signs of being burnt, their clothes are untouched, their hair has not been singed, and they do not even carry the smell of smoke. The only thing to have been destroyed by the flames were the ropes that bound them. How ironic. This symbol of the king's power is easily overturned by the one who is sovereign over all things.

The chapter concludes with the king acknowledging the great power of Yahweh. He notes quite rightly that only the one true God has this kind of power. He also passes a law making Judaism a tolerated and protected religion in the land. The Jews are free to practice their religion without the fear or harassment and persecution. Anyone who says anything negative about Yahweh will be cut into pieces and their houses burnt. The final verse tells us that the king then promote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What an amazing chapter. Nebuchadnezzar believed that he was a god. As ruler of the richest and most powerful empire at that time he thought that he was in charge. That he was the supreme master of all he surveyed. God showed him that he was not. Nebuchadnezzar asked what god can save you from my hands. The one true and only God said I am able.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never wavered and never doubted. They believed that God was able to save. I hope friends that you believe that too.

This world is full of myriad ways and means devised by people that supposedly provide salvation. The religions of the world offer their own futile advice and directives. Self help gurus give us their words of wisdom. The new age “enlightens” us on how we can save ourselves. All of these roads end up in the same destination. Follow them all as they wend and wind their way into the lake of fire. True salvation comes as our three Jewish heroes found out only by absolute faith and trust in God. Today salvation comes only through the person and work of the Lord Jesus Christ. We must trust and rely on upon Him alone for our salvation. He came to earth, lived the perfect life and died upon the cross bearing our sins so that we might be spared from the burning fiery furnace.

4 장의 처음 9 절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내용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조금 난해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단어들과 그 단어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러 이유로 우리에게 제대로 영감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의 3 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으로 가득찬 장입니다. 기쁨, 흥분, 신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다니엘서 3 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오만함과 허영심을 드러내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큰 금 신상을 세우고 모든 관리들에게 와서 절하고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바빌론의 이교도 다신교 문화에서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유대인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적대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이었지만, 왕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선한 시민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권위를 주신 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한다면 그들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결정에 분노를 폭발했습니다. 왕은 그들을 부르고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왕에게 한 그들의 대답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담대하고 용감한 신앙의 행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자기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할 수 없습니다. 불에 타죽는 끔찍한 죽음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왕은 격노했습니다. 그는 용광로를 최대로 뜨겁게 가열한 뒤 우리의 세 영웅을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왕은 멀리서 지켜보다가 용광로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람들이 용광로 안에서 금세 비참 타버릴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이 불길 사이를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수입니다. 분명히 세 명이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지금은 네 명입니다. 네 번째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왕은 서둘러 용광로로 가서 그들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나오자 이 사건을 목격한 모든 관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불에 덴 흔적이 없었고, 옷도 상도 지지 않았고, 머리칼도 그을리지 않았으며, 연기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불에 타 없어진 것은 그들을 묶었던 밧줄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밧줄이 우주 만물을 통제하는 주권자에 의해 너무나 쉽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3 장은 왕이 여호와의 위대한 능력을 인정하면서 끝납니다.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매우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는 또한 유대교를 바빌론 땅에서 용납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법을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려움이나 괴롭힘, 박해 없이 그들의 종교를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갈기갈기 찢고 집을 불태우라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중요한 직책을 줍니다.

정말 놀라운 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제국의 통치자로서 그는 자신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지배하는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신이 너희들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느냐고 호언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그 분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코 흔들리지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구원의 방법과 수단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자기들만의 쓸모없는 조언과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자기 계발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꾸며낸 자혜의 말을 퍼뜨립니다. 뉴에이지 사상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길은 목적이 없습니다. 그 길들을 꼬불꼬불 따

라카다 보면 결국은 불뭇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세 유대인 영웅이 발견했듯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만이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날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만 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불뭇)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1 Nebuchadnezzar the king,

To all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that dwell in all the earth: Peace be multiplied to you.

I'm sure that as we read today's passage you noted that it's a little different to what came before. In fact chapter four of Daniel is unique in the bible. It's unique because it is an official autobiographical document. What we are reading here in chapter 4 is a document perhaps given orally given under oath, or else a letter (epistle) penned by king Nebuchadnezzar himself. Now you may wonder whether this means that Nebuchadnezzar was divinely inspired. The answer to this query is no, he was not divinely inspired. But God did make sure that what Nebuchadnezzar said was accurately recorded.

This is a very important distinction for us to make. The bible is always accurate in what it records, but this doesn't mean that what is recorded is always true. Let me give you an example to demonstrate what I mean. When the devil's words are given to us in scripture we can be sure that what he said is accurately recording, but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what he says is true (see Genesis 3 as an example). So in this case Nebuchadnezzar is giving his testimony, and Daniel was able to record it exactly as it was given under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The king dictated, or wrote this document following the humbling events that we will read about in this chapter. So what we are reading here in chapter 4 is the king writing about the amazing supernatural events he has experienced, and how these events have changed him. It is if you like the equivalent of his official witness statement. This is what happened, and now I am recording it so that all will know the truth.

When you stop and consider what we are reading here it is almost a “miracle” in itself. This remember was written by a hugely prideful and egotistical man. He was undoubtedly the most powerful man of his time. So its simply astounding to think that he would issue an edict, in which he openly confesses his pride and arrogance.

It's also amazing to think that God would include the words of this pagan king as part of His divine revelation. It's good for us to remember that God is not limited in who or what He can use. Sometimes Christians think that they are too insignificant, too sinful or just too unimportant to be useful to God. This is simply not the case. God can, and in fact loves to use sinful and wicked people just like you and me to perform Kingdom work.

Let me say a few things here about when these events took place. Most Old Testament scholars are in agreement that the events detailed in chapter 4 took place many years after the fiery furnace incident (chapter 3). It's hard to be absolutely precise, but we are probably talking about 30 years later. This would mean that Daniel is now in his late 40s or perhaps early 50s. Nebuchadnezzar would have been in his mid to late 60s.

He died in 562 BC, and many believe that this letter was written shortly before the king's death.

He has enjoyed a long and illustrious reign. During his time as king he oversaw the growth and expansion of his empire. After the early uprisings and rebellions the empire enjoyed a long period of settled peace. He also was instrumental in great changes and improvements in the city of Babylon. Under his rule the city became an architectural wonder. Full of stunning buildings, arches and statues. He is of course most famous for designing the famous Hanging Gardens of Babylon.

King Nebuchadnezzar believed that he was the builder of “Babylon the great” and the architect of its peace and prosperity. He was soon to learn that all these things had been permitted by the will of the Most High God. But let's not get ahead of ourselves.

Let's look now at the opening of Nebuchadnezzar's letter. It may have been one of many similar letters that were sent out, or a single circular letter intended to be read, and then sent on to the next town or region.

It opens in a way that was typical of letters in the ancient world. Today we begin by stating who the letter is for, "Dear Bob." In the ancient world the sender of the letter is named first; **Nebuchadnezzar the king**. This was followed by the person or people to whom the letter was intended; **to all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that dwell in all the earth**. Now we know that the Babylonian empire was large but, it didn't embrace all the earth. This however was the kind of universal language commonly used by ancient rulers. They liked to believe that they ruled the world!

The next thing we read is the salutation, an expression of good will or polite courtesy. We might write in our letter today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I hope you are doing well." In this case the king wishes that **Peace be multiplied** among his readers. So what we are reading here is a fairly standard beginning to a letter of that time. Let us read on.

1 느부갓네살왕은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천하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오늘의 본문을 읽다 보면 이전 구절들과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4 장은 성경에서 특이한 부분인데, 이는 공식적인 자서전적인 문헌입니다. 이 4 장의 내용은 아마도 맹세하에 구술한 문서이거나,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직접 쓴 편지(서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한 말을 그대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구별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항상 정확하지만 기록된 모든 내용이 항상 사실은 아닙니다. 제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마귀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가 말한 그대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가 한 말의 내용이 반드시 사실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 장을 예로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경우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증언을 하고 있고, 다니엘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왕이 말한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왕은 우리가 앞으로 4 장에서 읽으면 알게 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기록을 구술했거나 썼습니다. 4 장 중에서 오늘 구절들은 왕이 직접 경험한 놀라운 초자연적 사건과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기록합니다. 일종의 공식적인 간증입니다. 이러 이라한 일이 일어났었고, 모든 사람이 그 진실을 알게 하기 위해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

오늘 본문을 읽고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거의 "기적"입니다. 이 기록은 매우 교만하고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 썼습니다. 그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자신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칙령을 내렸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교도 왕이 한 말을 그분의 신성한 계시의 일부로 포함시키셨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제약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너무 하찮거나, 너무 죄가 많거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 많고 사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왕국의 일을 수행하실 수 있으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은 4 장에 자세히 설명된 사건들이 볼 1000년(3 장)이 있는 지 여러 해 후에 일어났는 데 동의합니다. 절대적으로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30 년 정도 후일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40 대 후반 또는 50 대 초반이었을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60 대 중후반이었을 것입니다.

왕은 기원전 562 년에 죽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기 직전에 이 편지를 썼다고 믿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훌륭하게 통치했습니다. 왕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는 제국의 성장과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초기에 있었

던 붕괴와 반란 이후 제국은 오랜 기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또한 바빌론 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이 도시에 경이로운 건축물들을 건설했습니다. 놀라운 건물들, 아치, 조각상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그 유명한 공중 정원을 설계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대바빌론 Babylon the great"의 건설자이며 평화와 번영을 이루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곧 이 모든 것이 자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에게 허락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서신의 서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유사한 내용으로 쓰여져 여러 곳으로 보낸 많은 서신들 중 하나이거나, 아니면 단일 서신으로서 읽고 난 후 차례로 다른 마을이나 지역으로 보내져 돌아가면서 읽도록 쓰여졌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의 서신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편지는 "친애하는 밥 Dear Bob"과 같이 받는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고대에서는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편지를 받을 사람 또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천하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비록 바빌론 제국이 크긴 했지만, 온 땅을 다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고대 통치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보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온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사, 선의 또는 정중한 예의의 표현이 따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편지에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와 같은 내용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왕은 그의 서신을 읽는 백성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서신의 시작은 그 당시 편지의 꽤 표준적인 서두입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2 I thought it good to declare the signs and wonders that the Most High God has worked for me.

**3 How great are His signs,
And how mighty His wonders!
His kingdom is an everlasting kingdom,
And His dominion i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come now to the purpose of the letter. Why is the king taking the time to dictate or write down this letter? We always have a purpose or intent when we write. The same applies when we write letters or more likely send emails or text messages today. It may be that we want to impart some important news. It might be that a life situation has altered, or that we are just wanting to "catch up" with this person.

Sending correspondence in the ancient world was not easy. This means that the contents of letters was almost always significant or important. People didn't have the time or resources to send frivolous letters. That is certainly the case here.

The king needs to tell his readers about the signs and wonders that he has witnessed the **Most High God** perform. That is his purpose. To make known the wondrous things God has shown him.

A "sign" (*ath* in Aramaic) refers to a "portent," a "miracle" or a "special sign." The word "sign" is used in the bible to describe the occurrence of natural phenomenon that because of its particular magnitude or timing points towards divine intervention. Signs as their name suggests are always designed to point or alert us towards something else.

Take driving a car for example. As we drive along the road a sign points us towards something upcoming, a sharp bend in the road, an intersection or a level crossing. Signs in the bible are always intended to point us towards God. He, after all is the only one able to do these amazing and unexpected things.

Let us consider just one example of a sign given to us in the New Testament. In the Book of Acts we get the account of Peter and John healing a lame beggar (Acts 3:1-10). This man had been unable to walk from birth. Every day he was laid at the Beautiful Gate entrance to the temple. Peter

approaches the man and commands him to rise up and walk in the name of the Jesus Christ of Nazareth. Immediately these words are uttered the man's bones receive strength, and he gets up leaping and praising God.

This sign or miracle served two important purposes. Firstly, and most importantly it validated the power and might of the name of Christ. It affirmed to all present that He truly is the Messiah, the one sent to save. It demonstrated to all those who witnessed this miracle that God's power and might were at work in the world. Secondly it authenticated the two apostles (Peter and John). Because they could, through God's power perform such a miracle it meant they were God's true representatives and carried His divine message.

A “wonder” (*temahh* in Aramaic) is used in scripture to describe God's supernatural activity, or a special manifestation of His power. You may find it interesting to know that the two Aramaic words used for signs and wonders are only found in here in the Book of Daniel

So Nebuchadnezzar is writing because he wants his readers to know about the amazing signs and wonders he has personally witnessed the **Most Holy God** perform. He is of course referring to the dream interpretations he has experienced, and the miraculous saving from the flames of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I spoke before about the term **Most Holy God** and how a pagan would have used and understood it. Nebuchadnezzar was as we have noted a polytheist. He quite happily accepted a number of deities. So when he uses this expression he most likely means that he believed Yahweh was just the most powerful God from among many. In his understanding the God of Israel was just the most prominent or powerful god who ruled over a pantheon of lesser deities.

2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과 기적에 대하여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3 믿어지지 않는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여 주신 하나님 그는 영원한 왕이 되어 대대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제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 말합니다. 왕이 애써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글을 쓸 때 항상 목적이나 의도가 있습니다. 편지를 쓰거나 오늘날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자 할 때 씁니다. 또는 삶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나 아니면 그저 어떻게 지내는지 일상적인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서신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편지의 내용은 대부분 아주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편지를 보낼 시간이나 자원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확실히 그렇습니다.

왕은 독자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signs and wonders 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주신 경이로운 일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표적 sign"(아람어로는 *ath*)은 "징조 portent", "기적 miracle" 또는 "특별한 표적 special sign"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는 특정 강도나 타이밍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가리키는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표적 sign 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자체가 아니라 항상 다른 것을 가리키기 위해 의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차를 운전할 때 표지판 sign 은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무언가, 즉 급커브, 교차로 또는 평면 교차로를 가리킵니다. 성경의 표적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향하도록 의도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러한 놀랍고 예상치 못한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의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구걸하던 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사도행전 3:1-10).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전의 미문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다가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즉시 그의 뼈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표적 또는 기적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참으로 메시아이고, 구원을 위해 오신 분임을 확증했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로 그것은 두 사도(베드로와 요한)를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대표자이며 그분의 신성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기적wonder"(아람어로 *temahh*)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행위나 그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표적과 기사에 사용된 두 아람어 단어가 오직 다니엘서에서만 발견된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독자들에게 자기가 직접 목격한 **자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Most Holy God** 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에 대해 알리고 싶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이 경험한 꿈의 해석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르 불길에서 기적적으로 구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자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Most Holy God 이라는 용어를 이교도가 어떻게 사용하고 이해했을 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신교도였습니다. 그는 여러 신들을 가까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표현을 사용할 때 그는 여호와가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의 이해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위 신들의 판테온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신일 뿐입니다.

We then move onto the king's declaration of praise to God. It bears some similarities to Psalm 145. Let me read verses 10 to 13 of that Psalm.

**10 All Your works shall praise You, O LORD,
And Your saints shall bless You.
11 They shall speak of the glory of Your kingdom,
And talk of Your power,
12 To make known to the sons of men His mighty acts,
And the glorious majesty of His kingdom.
13 Your kingdom is an everlasting kingdom,
And Your dominion endures throughout all generations.**

What are we to make of these similarities? We have three options. Number one, it was pure coincidence that what the king wrote matches with this psalm. It's possible but unlikely. Number two, the king was familiar with the psalms. Had he read or even studied them at some point in his life? Again this is possible. Or, number three was he instructed or helped in this letter writing by a Jew, possibly Daniel himself. We cannot say with any certainty but it's an intriguing thought.

The king acknowledges through his words that the God of Israel is able to perform mighty signs and wonders. Furthermore that He rules and reigns over an eternal kingdom. A kingdom that has no beginning and no end.

Nebuchadnezzar was a great king, but here he recognizes that God's kingdom was far greater. It was greater in size and also in its longevity. Nebuchadnezzar was getting old. His generation was passing away. Soon he would die and leave the kingdom to the next generation. Who knew how competent they would be. All of his hard won gains might be lost or squandered. Such things could not be said about God. His eternal kingdom smoothly passed through countless generations of human beings.

Let us read on and examine the main body of the letter.

이어서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시편 145 편과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의 10 - 13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11.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압적을 알리시**
12. **주의 압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13.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러이다

우리는 이러한 유사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왕이 쓴 내용이 이 사편과 일치한 것은 순전히 우연의 일치다.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둘째, 왕이 사편에 익숙했다. 그가 살면서 사편을 읽었거나 공부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셋째, 왕이 이 편지를 쓸 때 아마도 유대인인 다니엘에게서 도움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왕은 그의 말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강력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영원한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왕국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왕국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규모가 더 클 뿐만 아니라 더 오래 지속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늙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곧 그는 죽어서 그의 왕국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유능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가 힘겹게 이룩한 모든 업적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의 영원한 왕국은 수많은 인간 세대들을 거쳐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편지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 I, Nebuchadnezzar, was at rest in my house, and flourishing in my palace. 5 I saw a dream which made me afraid, and the thoughts on my bed and the visions of my head troubled me.

Reading between the lines here in verse four we picture an empire that is stable and at peace. The word for “rest” here means being free from apprehension and fear. The word “flourishing” literally means to “grow green.” We might describe a plant flourishing in a sunny but sheltered spot. So picture in your mind the king relaxing (flourishing) at home. Enjoying nice food, good health and surrounded by the luxuries only a monarch can afford.

As I mentioned before most scholars believe that many years have passed during which the empire has been made safe and secure. Nebuchadnezzar is now resting in his comfortable and no doubt well appointed palace. However his peace and tranquillity is soon to be interrupted. He is to receive another dream from God. Now its easy for us to read through Daniel and think that king Nebuchadnezzar is frequently getting dreams. But the reality is that as far as we know he only received two. Two dreams separated by as much as 30 years. So receiving these disturbing dreams is a very infrequent occurrence. On both occasions the dreams have the same troubling impact upon the king. On the first occasion the king could not sleep. He was so troubled that thoughts of the dream plagued him throughout the day and night. We are not told that the king suffered exactly in this way here, but he was certainly disturbed.

It seems likely that although he professed to not understanding the dream he actually had some inkling of its meaning. This would help explain his unease. What will the king do? He needs help in deciphering the dream and its meaning. Let us read on and see who the king calls for help.

4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5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

4 절을 통해 바빌론 제국이 안정되고 평화를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편히 있다rest"라는 단어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강하다, 번성하다flourishing"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푸르게 자라다"를 의미합니다. 햇볕이 잘 드는 보호받는 곳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식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번성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과 건강을 즐기고 군주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 학자들은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 동안에 제국은 점차 안정되었다고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편안하고 화려한 궁전에서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화와 안정이 곧 방해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꿈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자주 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받은 꿈은 단지 두 개뿐이었습니다. 두 꿈은 무려 30 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왕은 이런 불안한 꿈을 자주 꾀 것이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왕은 꿈으로 인해 괴로우십니다. 첫 번째 경우에 왕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꿈에 대한 생각 때문에 밤낮으로 괴로우셨습니다. 왕이 두 번째 꿈 때문에 첫 번째처럼 똑같이 괴로우셨다는 말은 없지만, 분명히 꿈 때문에 번민했습니다.

왕은 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를 어렵듯이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왕은 무엇을 할까요? 그는 꿈과 그 의미를 알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속 읽고 왕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 Therefore I issued a decree to bring in all the wise *men* of Babylon before me, that they might make known to me the interpretation of the dream. 7 Then the magicians, the astrologers, the Chaldeans, and the soothsayers came in, and I told them the dream; but they did not make known to me its interpretation.

As we have seen on previous occasion Babylon is a deeply superstitious nation. Dreams, especially those of important people like the king are deemed to be significant. The belief was that dreams were the vehicles used by the gods to carry messages to their human subjects. This dream then was not to be ignored. It needed to be dissected and explained. Who would be equipped to help the king in this? Naturally it was time to call all of the wise men together. They were the “experts” on dream interpretation.

So once again we see a parade of all the wise men, soothsayers, mystics, psychics, Chaldeans, tarot card readers, astrologers along with the general odd bods and weirdos called in for an audience with the king.

Now you may wonder why the king went through this whole process. He clearly remembered what had happened when he experienced his first disturbing dream. His advisors had not been able to help but Daniel had given him the dream and its interpretation. So why bother with all the wise men and not just call for Daniel first? Well there may have been two possible reasons for this.

Daniel as we know had been appointed as an important government civil servant. He may have been serving in a distant location. Or he may have been sent off to a far flung region on royal business. So stated simply Daniel may not have been on hand. The king did have advisors working in the palace so it made sense to call them in first and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provide him with an answer.

A second possibility rests in the idea that the king despite his previous experiences with God was still caught up in the pursuit of worldly wisdom. He still believed that the answers to life's riddles and puzzles lay in the occult nonsense peddled by his “wise men.” We should not forget that the wisdom of this world seems so much richer and wiser to unbelievers.

As evidence for this we need only look at the breakdown of Western civilisation. Western Europe which once stood firmly upon God's Word and the truth it espouses has now rejected God and turned its back on the bible. Now beliefs and ideas that would have been scoffed at 10 or 20 years ago are openly embraced and encouraged. The decline of these nations is rapid and unless God intervenes terminal.

Anyway back to our account. You will note that two things are different for this second dream interpretation. It seems over the years king has mellowed. His fiery temper and impetuous nature have dissipated. So the first difference is that the king this time tells them the details of the dream. They are not left to try and read his mind. And the second difference is his relaxed attitude. Previously their failure to interpret the dream would result in a horrible death. Here, there is no mention of being chopped into pieces or having your house razed to the ground. So with this pressure to perform now removed how will these masters of dream interpretation fare? Well, not too well.

Once again these “wise men” are unable to provide an interpretation of the dream. One commentary I consulted did question whether this was actually the case. The dream doesn't on the surface seem too difficult to understand. So possibly they knew, or at least guessed at what it meant but were too scared to tell the king. This may be true, or equally perhaps God was hiding the truth from them. It's quite clear that in the intervening 30 years they had not devoted themselves to Yahweh and sought true wisdom in Him. Let us read on and see who is able to help the king.

6 그래서 내가 바빌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불러 그 꿈을 해몽하라고 명명하였다 7 점쟁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 기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꿈을 말했으나 그들은 내 꿈을 해몽하지 못하였다

이전에 살펴 보았듯이 바빌론은 매우 미신적인 나라입니다. 꿈, 특히 왕과 같은 중요한 사람들의 꿈은 의미심장하다고 여겼습니다. 꿈은 신이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믿었으므로 꿈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꿈을 자세히 분석하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누가 왕을 도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모든 현자들을 불러 모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꿈 해석의 “전문가”였으니까요.

다시 한번 모든 현자들, 점쟁이, 신비주의자, 심령술사, 갈대아인, □ □ □ □ □ □ □ □ □ □, 점성가 등등 이상한 사람들이 왕을 접견하기 위해 몰려듭니다.

왕이 왜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하시죠. 그가 첫 번째 불안한 꿈을 꾸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기억할텐데 말입니다. 그의 현자들은 도울 수 없었지만 다니엘은 꿈과 그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않고 굳이 모든 현자들을 불러들였을까요? 글썄요, 두 가지 가능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부 관리로서 중요한 직책에 있었습니다. 그는 먼 곳에서 알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왕의 업무로 먼 지역으로 파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니엘은 서둘러 왕을 접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은 궁전에서 일하는 고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불러서 답을 줄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왕이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지혜를 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삶의 수수께끼와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의 “현자들”이 퍼뜨리는 신비로운 년센스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가 불신자들에게는 훨씬 더 심오하고 현명해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서양 문명의 붕괴가 바로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섰던 서유럽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에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10 년이나 20 년 전에는 조롱거리로 불리웠을 믿음과 사상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이상 이 나라들의 소트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결코 돌아 □ □ □ □ □ □ □ □ □ □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꿈 해석의 경우 두 가지가 다릅니다. 수년에 걸쳐 왕이 온화해진 것 같습니다. 그의 불같은 성격과 충동적인 본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왕이 그들에게 먼저 꿈에 대해 말해줍니다. 현자들은 왕의 마음을 읽고 꿈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그의 느긋한 태도입니다. 이전에는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갈기갈기 찢겼거나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제 실패했을 때의 결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꿈 해석의 전문가들은 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현자들”은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참고한 한 주석가는 이것이 실제로 사실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주석가는 표면적으로 왕의 꿈은 그다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꿈의 의미를 대충 알았을테지만 왕에게 말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숨겼을 수도 있습니다. 30 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여호와의 한낱 노릇이 아니고 그분의 참된 지혜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계속 읽고 누가 왕을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 But at last Daniel came before me (his name is Belteshazzar, according to the name of my

god; in him is the Spirit of the Holy God), and I told the dream before him, saying:
 9 “Belteshazzar, chief of the magicians, because I know that the Spirit of the Holy God is in you, and no secret troubles you, explain to me the visions of my dream that I have seen, and its interpretation.

Finally, Daniel comes and stands before the king. The king reminds his readers that he had renamed this Jewish exile upon his arrival in Babylon. In case you forgot **Bel** means “lord” in Aramaic in the same way that Baal does in Hebrew. The primary god of the Babylonians was Marduk. So he is the “lord” in view here. The “**teshazzar**” part of the name means “protects his life.” So when we put it all together we get lord or Marduk protects his life. Not really a very desirable name for a follower of Yahweh. But as we spoke about before Daniel as a young prisoner in the pagan land of Babylon was not really in a position to object or refuse the name. That is the nature of being a slave, you lose your free will in most matters.

The king goes on to add an important detail here. You will note that he recognises that the Spirit of the Holy God is in Daniel. Now I have to point out here that I compared the translation of this verse across multiple English bibles. What I discovered was interesting. Only the NKJV (the bible we are using) translates this as “God” in the singular. All the other translations use “gods” in the plural.

What you may ask is the significance of this. Well, if the king is using the singular form “God” he is acknowledging that Daniel has the Spirit of the one true God residing inside and illuminating him. That's quite an admission for him to make. It means the king recognises that God can and does give people power to perform amazing feats.

If however he is referring to gods in the plural he is merely asserting that Daniel is being empowered by one of the many gods he believed existed. He hasn't therefore come to believe absolutely in the one true God of Israel. So in all probability Nebuchadnezzar is still thinking in polytheistic terms. He believed that Daniel did possess some special power or gift that has been given to him by one of the gods. It is for this reason that he thinks that Daniel can interpret this dream.

You will note here that the king addresses Daniel as the **chief of the magicians**. This as I'm sure you appreciate does not mean that Daniel was the leader of, and himself a magician. Daniel kept himself ritually clean and unsullied by the evil and occult practices of such men. Rather you will recall that Daniel had been promoted by the king to be the president over all the “wise men” of Babylon. So we might replace the word “magicians” here with “scholars” and that gives a better reflection of Daniel's position.

On this occasion the king explains the details of his dream. Will Daniel be able to provide him with the interpretation he seeks? That will be the subject of next week's sermon.

8 그 후에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트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들어왔다. 그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9 “박사장 벨트사살아, 나는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네가 야유써 풀지 못할 신비스러운 일은 없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내 꿈을 해몽하라.

마침내 다니엘이 와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 왔을 때 그의 이름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비알Baal 이 히브리어로 “주lord”를 의미하듯이 벨Bel 은 아람어로 “주lord”를 의미합니다. 바빌론인들의 주된 신은 마르둡Marduk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벨 즉 “주lord”는 마르둡을 의미합니다. 벨트사살의 “**드사 살teshazzar**”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다protects his life”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벨트사살이란 이름의 의미는 ‘주 또는 마르둡이 그의 □□ 보호한다lord or Marduk protects his life’ 입니다. 여호와의 따르는 사람에게서는 바람직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이교도 땅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그 이름에 반대하거나 거절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삶이 그러하듯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신의 뜻free will 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왕은 여기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합니다. 다니엘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the Holy God 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여러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 비교해 보았는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직 NKJ

V(우리가 사용하는 성경)만이 이것을 단수형의 "하나님God"으로 번역합니다. 다른 모든 번역본들은 복수형으로 "신들gods"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왕이 단수형 "하나님God"을 사용한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one true God 이 다니엘 안에 거주하고 그에게 계시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으로서 대단한 인정입니다. 이는 하나님God 께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압력을 상추하도록 능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형으로 신들gods 이라고 말했다면 왕이 믿는 많은 신들 중 하나가 다니엘에게 능력을 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왕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다신교적 관점에서 사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one of the gods 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믿고, 그런 이유로 인해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이 다니엘을 **박사장the chief of the magicians** 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마술사의 수장이고 그 자신도 마술사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은 유대교의 의식에 따라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했고 그들의 사악하고 신비로운 관행으로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전에 왕이 다니엘을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wise men"의 수장으로 임명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마술사들magicians"이라는 단어 대신에 "학자들scholars"로 대체하면 다니엘의 직책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왕은 자신의 꿈의 세부 사항을 설명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원하는 해석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주 설교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Lesson to learn

I have one comment to make based on today's passage.
오늘의 본문에 근거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Looking in all the wrong places

As you may know a few weeks ago I suddenly developed a terrible pain in my right shoulder. The pain evolved slowly over Sunday afternoon, I could barely sleep that night and by Monday morning I was in absolute agony. All but the smallest movement caused me excruciating pain. It was difficult to even dress myself or wash my face. As you can imagine I was deeply concerned. What was wrong with me? Would I ever be able to brush my hair again? I went to my bookshelf to see if I had any books that might help me understand this situation.

The first book I pulled down off the shelf was about the history of England. A nice book, full of colourful pictures and information on the kings and queens of England, but not much help on shoulder pain. I scanned the shelves again and found a book on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steam engines. It's one of my favourites, very instructive for learning how engineers harnessed and refined the power of steam. Sadly however not that insightful for painful shoulders. You can see the issue here I'm sure. I was looking for help and guidance in all the wrong places.

King Nebuchadnezzar was much the same. It seems he was either a slow learner, or someone with a very short memory. He had forgotten how useless his wise men had been in the past. He had also forgotten, at least temporarily that Daniel had been very useful. Initially then Nebuchadnezzar was looking in all the wrong places.

As followers of Christ we at times can be just like Nebuchadnezzar. Looking for answers in all the wrong places. Just like him we can easily forget that God has revealed to us in multiple ways where we should be looking. As we look at the world today we cannot help but notice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and issues. When we consider our own lives and the lives of those around us we see the same thing. As sin filled human beings this should not surprise us.

Why is there trouble and evil in the world? Its because the world is full of sinful and evil people.

